"인권·평화 메시지 담은 광주작가들 작품에 매료 꾸준히 교류하고 싶어요"

일본 '갤러리 레타라' 요시다 시게루 대표 인터뷰

훗카이도·광주 교류전 작가 리서치 광주 찾아

日 저명한 조형 미술가 8월 광주아트페어 참여

"장인어른 전라도 출신 광주 작가 꾸준히 초대"

"예술은 언어·국경을 뛰어넘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미술작품은 예쁘기 보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인권·평화정신이 밑바탕에 깔린 광주 작가들을 눈여겨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광주 작가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현 시대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광주를 방문한 일본 '갤러리 레타라' 요시다 시게루(73) 대표는 "예술가들은 현재를 살고 있으니 지금 메시지를 남기지 않으면 안된다"며 "작품을 통해 개혁을 제안하고 세계 여러 민족이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미술계에서 저명한 조형 미술가인 요시다씨는 평등과 평화 사상을 작품에 담고 있다. 지난 8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16 광주아트페어'에 참여, 여성 가슴을 형상화한 설치물을 선보였다. 메마른 논처럼 갈라진 가슴 표면 틈 사이로 빨간 빛이 보이는 작품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오염된 생명'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래 누드는 부끄러워서 안하려고 했지만 원전 피해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강했죠. 솔직히 작품이 잘 팔리지는 않지만 돈을 벌려고 예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내년 8월 일본에서 열 예정인 '2×2 훗카이도·광주미술 교류전'을 앞두고 지역 작가를 리서치하기 위해 방한했다. 통역과 안내를 맡은 강다희 작가와 초청 예정인 이기원, 위진수, 정명돈, 최순임 작가를 만나고 한희원 미술관 등을 방문했다. 훗카이도 문화재단과 '삿포로 국제예술제'에 맞춰 양국 작가가 각각 2명씩 참여하는 전시를 2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요시다씨는 "2는 곱하거나 더했을 때 똑같이 4가 되는 '평등'을 상징하는 숫자다"며 "첫번째 전시는 한국 전통미를, 두번째는 현대 미술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초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요시다씨는 지난 2013년 훗카이도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이 공동 기획한 '한국·훗카이도 미술교류전'를 계기로 한국 미술계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으로 광주 작가들을 초청한 데 이어 2014년에는 '갤러리 레타라'에서 한국 이혜영씨를 비롯해 오사카, 도쿄 작가가 참여한 삿포로 현대아트 교류전을 열었다. 같은해 광주에서는 일본에서 요시다씨 등 12명을 초청했다. 지난해도 양국 작가가 참여한 레지던시·전시를 기획했다.

그가 광주와 한국에 애착을 갖는 데는 개인적인 사연도 숨어 있다. 아내 요시다 마유미씨는 재일 교포 2세로, 장인이 전라도 출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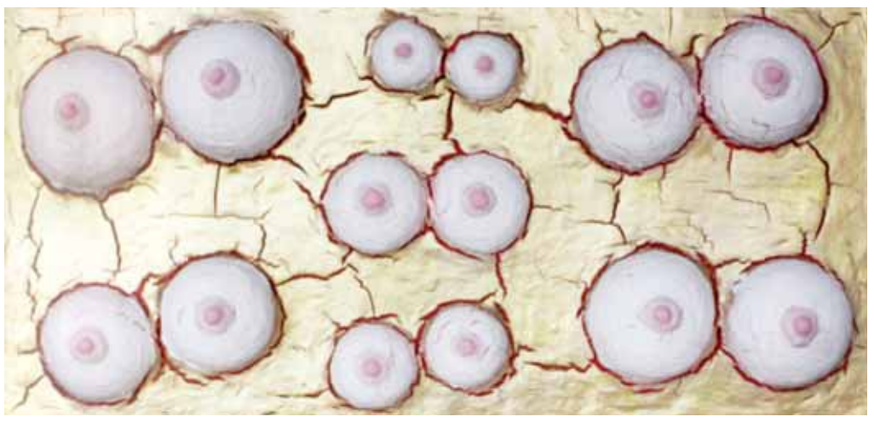
"장인어른은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분이시죠. 항상 고향을 생각하시고 돕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장인어른 뜻을 받들어서 광주와 계속 인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요시다씨 형과 친했던 한국인 친구가 고향(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인사를 하러 왔던 모습이 뇌리에 남아있다. 당시 요시다씨는 슬픈 얼굴을 한 친구를 보고 "모든 민족이 친구가 될 수 있구나. 차별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눈여겨 보고 있는 광주 작가는 박다혜씨를 꼽았다. 프랑스 테러, 위안부 등을 흑백화면으로 표현하는 박 작가를 지난해 '갤러리 레타라'로 초청해 개인전을 제공했다.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야한다는 생각을 높이 샀다.

"광주에는 좋은 작가들이 많아요. 앞으로 1년에 1~2회 광주 작가를 발굴·초대할 생각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은데 역사는 제대로 인식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민간외교 차원에서 예술가들이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8월 '2016 광주아트페어'에 참여한 요시다 시게루 작품.

이이남 작가 광주문화재단에 작품 또 기증

부산비엔날레 선보인 가상현실 체험작품 '혼혈하는 지구'…3월 일반 공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가 최근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체험작품을 광주문화재단에 기증했다.

이 작가가 광주문화재단에 기증한 작품은 '혼혈하는 지구'다. 이씨는 그동안 광주문화재단의 기부센터인 '문화보듬 10000센터'에 '빛의 비너스', '빛의 숲' 등 다수 작품을 기부하는 등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융복합전시실 '미디어338'에 이 작품을 설치, 내년 3월부터 시민들이 무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혼혈하는 지구'는 지난 2016부산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파리 구글연구소와 기술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구글의 틸트 브러시(Tilt Brush) 기술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를 머리에 착용한 후 컨트롤러를 이용해 3차원 화면에 체험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씨는 틸트 브러시를 착용할 때 등장하는 가상화면에는 조선시대 정약용이 쓴 '주석' 중 자연의 이치를 다룬 한자를 금빛 이미지로 형상화해 배경으로 삽입했다. 기기를 착용하고 고개를 돌리면 360도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가상 공간 속에서 정약용의 한자들과 우주 배경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오는 2017년 3월1일 정식 오픈하는 빛고을 시민문화관 일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플랫폼'은 홀로그램 극장(유료), 미디어놀이터(유료), 홀로그램 파사드, 디지털 갤러리,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미디어 338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062-670-7491~3.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혼혈하는 지구'

박다혜 초대전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31일까지

박다혜 작가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31일까지 초대전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불어도 빛은 나타나지 않는다'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을 모티브로 인간 불안과 공포를 모노톤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는 E. 프롬(Fromm)이 쓴 '자유에서의 도피' 내용에서 따온 말로 '일상 속의 무력감과 공포'를 의미한다.

전시출품작 'unreality'시리즈는 다양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테러현장을 보고 있는 어린아이를 비롯해 아이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어른, 쓰레기산에서 물건을 줍는 아이들이다.

TV 속 내용을 목탄과 유화, 아크릴을 혼합하며 담담하게 담아 낸다. 현실 속 대상들(인물·대포·철조망 등)은 흑백으로 그리며 비현실 느낌을 준다. 비현실 소재(하늘·별·홍학 등)는 아크릴물감으로 채색하며 현실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김해 외동창작스튜디오1기 입주작가(2015), 광주 무등현대미술관 레지던스 1기 입주작가(2013)로 활동했다. '무채색으로 바라본 현대인의 초상'(광주), 일본 레타라 갤러리 초대개인전을 열었고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올해 청년작가 10명을 선정해 개인전 기회를 제공했던 갤러리는 내년에는 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062-383-007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unreality'시리즈

맨부커상 수상 작가 한강 오늘 5·18문화센터 강연

맨부커상 수상 작가인 광주 출신 한강 〈사진〉이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진행하는 '치유의 인문학' 강사로 나선다.

한강 작가는 13일(오후 7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그러나 글을 쓴다는 것'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한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우리는 왜, 어떻게 무엇인가를 쓰게 되는 것일까"라는 화두를 토대로 글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치유의 관점에서 들려줄 예정이다.

'치유의 인문학'은 지난 2013년부터 이 시대 대표적 지성들을 초청해 진행해오고 있는 인문학 강좌다. 사회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폭력 등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다. 문의 062-601-1980.

/박성천기자 skypark@

M갤러리 대관안내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맨션 1층)